

書 評

金 斗 憲 著

現 代 社 會 思 想

張 偉 敦

(金斗憲 著「現代社會思想」語文閣 1968年) 過去 여러 著書를 통하여 倫理學分野에 있어서 공헌을 많이 하신 金斗憲先生이 이번에는 分野를 훨씬 넓혀서 現代에 있어서 여러 社會思想의 歷史的 發展背景과 內容을 紹介 分析하는 책을 「現代社會思想」이라는 題目아래 著述하셨다.

著者自身이 序言에서 指摘하다 싶이 六·二五의 쓰라린 共產侵略을 經驗하고 共產主義와 對立되는 自由主義·民主主義를 信奉하는 우리로서 共產主義를 危險視하고 外面하여 알라고 하지도 않는데 近來에 와서 共產圈의 動向을 살펴보는 것이 緊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挑戰해오는 共產主義가 무엇이냐를 알려면 社會思想一般에 對한 概說이 必要하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서 「社會思想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는 社會科學을 究明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著者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著者는 736面에 達하는 冊을 셋으로 區分하고 第一篇 社會科學에서 社會科學의 歷史的 發展背景과 方法論을 取扱하였고 第二編 社會思想에서 社會主義·共產主義·民族主義·自由主義·資本主義·民主主義를 記述 分析하였고, 第三篇 後進社會에서는 新生國家의 現況과 理念을 紹介 評價하는 同時에 八·一五 解放後 韓國의 政治 經濟 發展을 概觀하였다.

※ 필자: 서울대학교 교수, 교양학부 도서관장

좀 더 具體的으로 볼 것 같으면 第一編에서 著者は 近代 市民社會의 形成 發展을 記述하면서 市民社會 그리고 近代 國家에 對한 여러 思想家들의 見解를 紹介하고 이러한 近代化 過程을 밝고 있는 歐洲 社會에서 社會現象을 研究 하는 學問이 어떻게 發展하였는가 하는 것을 部門別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서 社會現象을 研究하는 方法論과 막스·웨버의 社會理論을 論述하고 近代 市民社會를 經濟的으로 特徵지우는 資本主義에 挑戰하는 마르크스·엔겔스의 理論을 紹介하면서 批判을 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著者の 理論 紹介가 西歐人에 그치지 않고 우리 韓國의 近代化 理論의 先驅者들—星湖 李瀾, 磻溪 柳馨遠, 茶山 丁若鏞—의 李朝 實學 理論들을 잘 整理 要約하여 論議하였다.

第二篇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現代 世界에 있어서 重要的 影響을 미치고 있는 여러 主義 即 社會主義·共產主義·民族主義·自由主義·資本主義·民主主義의 由來, 變遷 過程, 將次의 展望, 諸問題點等 諸學說을 制限된 紙面內에 잘 整理하여 紹介하고 論評하고 있다.

第三篇에서는 後進社會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 著者は 2次大戰 以後 새로 나타난 新生國의 諸類型, 傳統文化의 變遷 過程, 그리고 新生國의 政治 經濟 體制를 概觀하는 한편 新生國들의 相異한 理念의 概觀과 그에 따르는 外交 그리고 地域的 問題까지도 取扱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8·15 解放以後의 韓國社會의 動向에 對해서 歷史的으로 考察하고 나아가서 經濟成長, 反共態勢, 韓日修交, 國土統一의 問題에 이르기까지 論及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尨대한 領域을 갖는 現代 社會思想은 政治·社會·經濟·歷史·法學·心理學·人類學·哲學을 包含하고 이 各 分野에 걸친 多樣 多色한 思想系譜와 體制를 整然하고 統一性있는 分析과 評價는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極히 힘드는 일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오늘날 學問分野가 細分 化됨에 따라 學校도 細分된 專門 分野別로 教育이 偏重되는 傾向에서 여러 部門에 同時에 造詣깊은 學者를 많이 輩出시키기 어려운 것이 現況이다.

이러한 與件下에서도 現代 社會思想을 總括的으로 보는 冊의 必要는 더욱 더 增大해가고 있는데 이에 呼應해서 長時日間的 繼續的인 努力끝에 내어논

이 책은 그規模와 企圖의 果敢性만으로도 높이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넓은 社會科學 諸領域의 代表的 理論과 思想의 內容을 要約해서 썼기 때문에 이 冊을 通讀하는 사람은 現代 社會思想의 鳥瞰圖를 보는 氣分을 느낌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冊을 읽음으로 해서 社會思想 全體 속에서의 各 理論家의 位置를 손쉽게 把握할 수 있고 이러한 面에서 現代 社會思想을 全般的으로 概觀하려는 사람에게는 強力히 勸하고 싶은 冊이다. 特히 現代 社會思想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學生들에게 將次 社會科學의 各 專門 分野를 專攻하기에 앞서 좋은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冊이 될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各 分野를 專攻한 大學院 學生들에게도 社會科學 一般을 넓게 整理해 보는 데도 適當한 冊이라고 생각된다.

勿論 冊 內容의 些細한 點을 하나 하나 따진다면 論議될 點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이는 著者가 版을 거듭하는 過程에서 改善될 것을 믿고 여기서는 이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가지로 制約된 環境을 克服하고 남들보다 優秀한 作品을 만들어 내는 것에 對해 于先 祝賀의 뜻을 表明하는 바이다.

물 리 유 기 화 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O.H. Wheeler 저

이 익 춘

30년 전에는 화학을 무기, 물리, 유기, 분석화학의 네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이 생물학과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므로써 생화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화학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되고 새로운 분야의 하나가 물리 유기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리유기화학은 1940년 L.P. Hammett가 “물리유기화학”이라는 저서를냄으로써 화학의 한 분야로 정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과거

※ 필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공과대학 도서관장

의 유기화학은 소위 제조유기화학에 속하며 이것은 실험실에서의 기술에 의존하는 바 크며 과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순수한 경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물리화학의 발전과 이론화학 발전은 유기화학을 경험적인 제조화학으로 부터 하나의 새로운 체계화된 학문으로 끊임없이 변천시켜 왔으며 근래의 유기화학은 종전의 순 경험적인 면을 되도록 줄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유기물의 구조론과 반응론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물리유기화학이며 이 분야는 새로운 하나의 화학분야로서 더욱 발전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1940 년대에 이 분야의 저서가 Hammett의 저서 뿐이었던 것이 근대에 와서는 물리유기화학이라는 같은 제목아래 5종이 발간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이론적인 분자물리학의 원리를 유기화학에 적용하므로써 이론유기화학의 길을 열었으며, 유기화합물을 물리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리유기화학은 이제 고전적인 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화학 이외의 생화학 및 핵물리에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유기화학 교재의 대부분이 이제는 물리화학적인 원리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물리유기화학에 대한 더욱 뛰어난 교재가 많이 쓰여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교재들이 유기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다루는 데 치중하거나 혹은 가장 초보적인 이론만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 두가지 점을 모두 취급하거나 물리유기화학의 분야에서 최근의 흥미로운 점을 폭 넓게 다루고 있는 교재는 전무한 편이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Principles of Modern Chemistry” 시리즈의 하나로서 1966년도 Elsevier Publishing CO., 출판으로 총 172면이다. 저자 Wheeler 교수는 1953년에 London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았으며, 그 해에 곧이어 Purdue 대학의 postdoctoral research fellow가 되었다. 그 다음해에 그는 국립 Mexico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맡고 있다가, 1957년에

Dalhousie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1958년 이후 Wheeler 교수는 Puerto Rico 대학의 화학과 정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1962년 이후에는 동 대학의 핵 과학센터의 소장도 겸하고 있다. 그는 1964~1965에 John. S. Guggenheina 재단의 fellow가 된 바도 있다.

이 분의 저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반응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물리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첫 세장에 걸쳐서는 원자가 및 분자구조의 이론적인 기초, 전자효과 및 입체화학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유기반응을 반응속도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화학반응의 반응속도이론, 반응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물리적인 방법 및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실려 있다.

이어서 유기화합물의 여러가지 반응을 이온반응과 프리라디칼반응으로 나누고 각 유형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전형적인 반응의 예로부터 물리적인 테크닉을 사용하여 반응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실례를 보이고 있는 데, 여기에는 실례적으로 중요한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Wheeler 교수는 사전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분야를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는 관실사까지 포함시켜 요령있게 기술하고 있다. “뉴프론티어”라고 이름 붙인 마지막 장에서는 분자궤도론적 계산을 생화학에 적용하여 그 구조의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유기화합물의 hot atom 반응에 대해서도 잘 요약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이 이외에도 실제적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생생한 문제를 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강의실에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문헌소개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교재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중요시되는 레뷰 및 잡지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쉽게 문헌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Wheeler 교수는 이 책에서 유기화학반응과 이론적인 배경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이제까지의 물리유기화학 교재가 내포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적은 책자에 급격히 발전하는 물리유기화학 분야를 모두 취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나 이 분야의 입문서로서는 적합하여 학부 학생에게는 권하고 싶은 책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 분야를 짧은 시간내에 이해하는데에도 매우 적합한 책이라 하겠다.